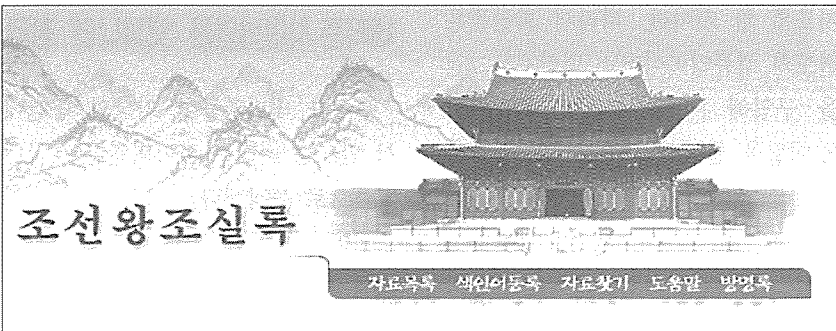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인터넷에 뒀다

내 최초로 한문원전에 대한 낱자 검색기능을 통해 인명이나 지명, 역사

속속 뛰어 들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네오무비 등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예카', '뱀파이어블루' 등 인터넷영화를 제작, 곧 개봉할 예정이다. 이들이 일명 '웹무비'로 불리는 인터넷 영화 제작에 몰두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영상으로 표현되는 영화가 네티즌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력을 발휘하는 문화소재이기 때문이다. 웹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웹무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하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용자에게 의견을 묻는다. 사용자가 고르는 의견에 따라 각각 다른 줄거리가 펼쳐진다. 이미 지난 6월달에 '영호프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웹무비를 선보였던 네오무비(www.neomovie.com)는 최근 '뱀파이어블루'라는 또다른 인터랙티브 영화를 촬영 중이다. 현대 사회에 등장한 뱀파이어의 행각을 소재로 다룬 이 영화는 잔혹영상과 정사장면 등으로 성인관객을 사로잡을 예정.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총 3억원을 들여 해커의 세계를 다룬 인터넷영화 '예카'를 제작한다. 이미 제작발표회를 가진 한컴은 한길미디어와 손을 잡고 유명 연예인들을 주인공으로 섭외했다. 약 80분 분량으로 제작되는 이 영화는 12월 하순 홈페이지(www.haansoft.com)를 통해 무료



한글로 서비스되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어려운 한문과 고어 때문에 일반인이 읽기 힘들었던 「조선왕조실록」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인터넷(silok.unitel.co.kr)에 공개됐다.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가 26년간에 걸친 한글번역작업을 거쳐 발간한 4백13권의 책자를 서울시시스템이 4년간의 전산화작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서울시시스템이 최근 삼성SDS와 제휴를 맺고 PC통신 유니텔과 인터넷에 한글로 공개했다. 조선왕조 5백년의 역사를 다룬 「조선왕조실록」은 원전이 모두 한문으로 적혀 있고 매일 10페이지씩 읽어도 4년3개월이 걸릴 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히 내용 공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왕조별, 주제별, 주요사건별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국

용어 등 괄호안에 병기된 한자단어의 중간글자까지 모두 한 자 단위로 찾아볼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기능이 지원된다. 내용을 열람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니텔에 접속한 후 'gosilok'을 입력하면 되고 분당 3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전용 영화제작 붐



네오무비에서 제작한 웹무비 '영호프의 하루'

영화와 상관없는 벤처기업들이 일반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전용의 영화제작에

상영할 계획이다. 이 영화에는 한컴과 관련있는 네띠앙, 하늘사랑 등 자회사들의 상품이 소도구로 총 등장할 예정. 한컴은 “웹무비는 저렴한 비용의 기업 홍보 및 고객 확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터넷 콘텐츠를 좌우하는 수단으로까지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웹무비 진출 의도를 밝혔다. 이밖에 제이엔제이미디어가 영화 ‘반칙왕’에 투자할 제작비를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등 벤처기업들이 인터넷영화에 갖는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E-메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세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해방구!

- ◆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도 안심!
- ◆ 업데이트도 필요없다!
- ◆ 메일만 클릭하면 걱정 끝!
- ◆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평생무료!

E메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E메일로 PC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드립니다’ 인터넷 벤처기업인 인터코드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개발업체인 하우리와 제휴, 원격 컴퓨터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에브리존’ (www.everyzone.com)을 최근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전송받은 E-메일을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컴퓨터바이러스의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

에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하우리가 바이러스 활동일에 맞춰 무료로 E-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회원들이 수신된 E-메일을 열어 대상 드라이브를 지정하면 하우리의 원격 바이러스진단 및 치료시스템에 연결돼 3분 이내에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별도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 PC에 설치할 필요없이 E-메일을 클릭하는 것으로 컴퓨터바이러스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됐다. 에브리존은 이같은 원격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신존’과 함께 ▲회원들의 취향

에 맞게 꾸며주는 인터넷 매거진인 ‘매거진존’ ▲멀티미디어 카드 ‘카드존’ ▲인

사는 “E-메일을 통해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외부에서 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에브리존은 하우리를 비롯해 에이메일, 레떼컴, 트론에이지, 오픈뮤직 등과 분야별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사이버언론 ‘네티피니언’ 창간

순수한 네티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네티즌 사이버언론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인터넷업체 게이트코리아는 네티즌들이 직접 기사와 칼럼 등을 작성하는 사이버 언론 ‘네티피니언’을 최근 창간했다. 네티피니언은 창간에 앞서 1만명을 목표로 네티즌 기자와 칼럼니스트 모집에 나섰다. 직업적인 기사를 두지 않고 일반 네티즌들 가운데 자격을 부여받은 기자와 칼럼니스트가 실명으로 작성한 글만을 올리기로 했다. 생활과 직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물론

터넷 쇼핑을 도와주는 ‘쇼핑존’ ▲최신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회

네티 피 니 언

기사모집 | 네티피니언 Home | 네티피니언 Q/A | 자유게시판 | 토론광장 | 발표무대 | 유머마당 | 링크모음 | HR

네티피니언의 네티피니언 | www.GateKorea.net | 1999년 11월 02일 17:27

플레이스테이션과 소프트웨어 하나로 합쳤다

네티피니언론 '네티피니언'은 네티즌기자가 제공하는 기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피니언'의 기사는 본사이트의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별거숭이 임금님의 인문탐안 행차 땀빠래

▶▶▶ 한국 정체가 야당은 없다

▶▶▶ 경마운동 문제 많다

▶▶▶ 한국신문들, 이제 달라져

▶▶▶ 한국 축구가 미드윙드가 약한 이유

▶▶▶ 이미지와 기업

▶▶▶ e-coin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

▶▶▶ 내가 생각하는 반문보도

▶▶▶ 11월0일 MSN PC수첩 보셨나요? 우리부터 정말 거슬리는군요...

▶▶▶ 우리나라의 언론은 천편일률적이며 빈말장성이 많다.

▶▶▶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유쾌이오프? 2차전 삼성과 롯데와의 경루 야구 플레이오프 최고의 명승부와

▶▶▶ 독서록 [내 영혼의 백야] 주성기작 민음사

네티즌들이 만드는 사이버언론 네티피니언의 홈페이지

특정 사안에 대한 비평과 고발, 제언 등을 다양하게 제공, 새로운 차원의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 소속 기자나 칼럼니스트의 글을 실명과 사진, 메일주소 등을 함께 실어 기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무책임한 의견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신분확인을 통한 철저한 원고 실명제를 실시, 책임있는 사이버언론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게이트코리아의 홈페이지(www.GateKorea.net)나 네티즌의 인터넷사이트(www.netpini-on.co.kr)에서 볼 수 있다.

네티즌 E메일주소 평균 2~3개씩 보유

국내 네티즌들이 개인당 평균 2~3개의 E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통씩 E메일을 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자사의 사이트인 '다음' (www.daum.net)을 통해 모두 2천98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E메일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4%가 2~3개의 E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1%는 4~5개를, 12%는 1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러개의 E메일 주소를 가진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사용하는 주소는 몇개인가'라는 질문에는 44.7%가 2개, 41.9%는 1개, 9.9%는 3개라고 각각 대답해 개인당 평균 2개의 E메일 주소를 실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한달 평균 발송하는 E메일의 횟수는 평균 30회로 집계됐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E메일 주소에 대해서는 무료 E메일 주소라는 대답이 63.2%, 소속 회사의 E메일은 31.6%, PC통신의 E

메일은 5.3%로 각각 나타났다. '왜 무료 E메일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리해서(72.4%)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E메일 서비스업체의 부대서비스 및 정보활용을 위해(16%), 비용부담이 없어서(9.2%) 등으로 대답했다. E메일의 용도와 관련, 개인적 용도라는 답변이 78%로 업무상의 필요성보다는 훨씬 많았으며 이같은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E메일의 사용 장소는 집(30.8%), 직장(29%), 학교(28.9%), PC방(9.7%) 등의 순이었다. 또 E메일 사용시 주로 첨부하는 파일은 MS워드/아래아한글/훈민정음 등 워드파일이 전체의 59.3%로 가장 많았으며 멀티미디어 파일도 16.2%나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용환경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무료 E메일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의 확산과 더불어 네티즌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로 웹 검색하는 소프트웨어 속속 등장

인터넷을 입으로 켜고 끌 수 있게 됐다.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닌 음성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의 '보이스 익스프레스(Voice express)', IBM의 '바이아 보이스(Via voice)', 드래곤시스템의 '내츄럴리 스피킹(Naturally speaking)'이 대표적인 제품들. 이 소프트웨어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마우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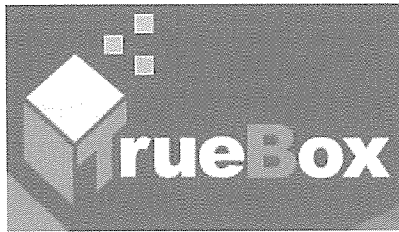


무료 E메일을 나눠주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홈페이지

키보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마이크를 연결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의 '커뮤니케이터' 등의 웹브라우저와 MS의 윈도우 응용소프트웨어인 '오피스'에서 음성으로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접속부터 음성으로 시작할 수 있다. '오픈(Open)'이라고 말하면 기본 웹브라우저로 지정한 소프트웨어가 자동 실행된다. 홈페이지 접속은 물론이고 특정 단어나 사진검색, 전자우편까지 음성으로 쓸 수 있다. 아직은 영어만 가능하지만 L&H의 경우 한국어판을 개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우리말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초 가장 먼저 나온 L&H의 보이스익스프레스는 단어와 문장인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미국의 성인남녀 1천명의 음성을 추출해 표준 인식명령집을 만들었으며 올해 말 나올 차기제품에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벨기에어도 추가할 예정. 한국어판은 현재 벨기에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개발중이며 내년 여름께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달 선보인 IBM의 '바이아보이스'는 최대 2백만개의 음성명령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며 최근 출시한 드래곤시스템의 '내츨러리 스피킹'은 14만개의 단어가 들어있어 사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5분 정도 훈련시키면 사용할 수 있다.

팩시밀리 없이도 E-메일로 팩스 수신

고가의 팩시밀리가 없어도 무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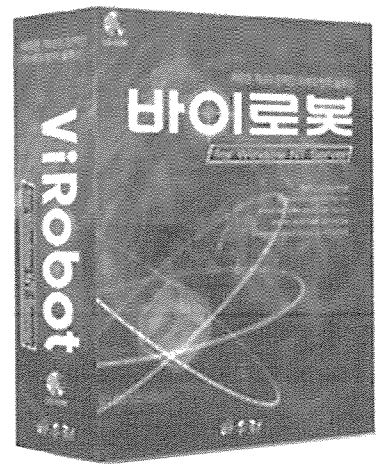


트루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팩시밀리 없이도 E메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팩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인 두루넷은 최근 E-메일 형태로 팩스를 받아볼 수 있는 '트루박스'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두루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트루박스 홈페이지(www.TruBox.com)에 접속,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ID@trunet.com' 형식의 ID와 사서함번호를 발급받으면 무료 E-메일 사용은 물론 E-메일 형태로 PC에서 팩스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팩스를 보내는 사람은 팩시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걸어놓고 트루박스 접속번호 (02-3486-5233)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수신자의 사서함번호를 누른 후 팩스를 전송하면 된다. 연말부터는 팩시밀리 대신 전화를 이용하면 음성 E-메일도 보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가의 팩시밀리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팩스가 디지털파일로 전환돼 E-메일로 오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비밀스런 팩스도 자신만이 볼 수 있고 수신된 팩스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두루넷은 "최근 몇년간 팩시밀리 수요와 인터넷 이용자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네티즌들의 팩스 수신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팩스를 연동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PC감청 바이러스 기승



PC감청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바이로봇'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바로 '감청'할 수 있는 악성 컴퓨터바이러스가 등장, 기업 등 고급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제작업체인 하우리는 최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되는 내용을 해커가 지정한 특정 사이트로 전송하는 에코키스A 등 3종이 최근 잇달아 발견됐다"며 "이 바이러스는 컴퓨터 오작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컴퓨터 입력 정보를 해커에게 노출시켜 정보보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하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내부에 들어있는 암호가 '바보천치' 등인 것으로 미뤄 볼 때 국내산으로 짐작된다"면서 "만약 해커가 이 바이러스를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 의도적으로 배포, 정보를 빼낸다면 일반 전화감청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바이러스는 하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www.hauri.co.kr)를 통해 배포하는 '바이로봇'을 이용하면 퇴치할 수 있다. ⑤7